

강진, 민주 경선이 본선...무안, 현 군수 3선 제동 관심

강진군수

강진원, 경제 활성화 등 고평가...재선 도전
오병석, 농업 전문성 강점...경선 재도전
야권 입지자 전무...민주당 경선 관심 집중

강진군수 선거는 강진원 현 군수의 재선에 맞서 농업 전문가와 토박이 정치인이 맞붙는 형국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 군수를 포함해 입지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민주당 경선 결과가 사실상 본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진원(66) 현 군수는 행정고시 출신인 '정통관료'로 분류된다.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면서 군의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강진 반값여행'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와 전국 최고 수준 육아수당 지급,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정책 등이 손꼽힌다.

강진원 군수는 행정경험에 추진력을 더해 다양한 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을 가시화하고 있어 주민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다. 강 군수는 현안사업과 주목받는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 일찌감치 출마 행보에 나선 상태다.

강 군수에 맞서 오병석(63) 전남대 초빙 교수가 표발을 다지고 있다. 기술고시 출신으로 30여년 공직 생활 대부분을 농림축



강진원



오병석



차영수

산식품부에서 보낸 오 교수는 '농업 전문가'로 꼽힌다. 앞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철저부심해 일찍이 표심잡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경험은 적지만 강진에서 초·중·고를 졸업했다는 점과 농업 전문성을 갖췄다는 점이 강점으로 거론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차영수(62) 전남도위원이 강진군수 선거에 출마표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에서 유일한 도위원으로 재선을 거치며 조직력을 갖췄다는 평가와 함께 지역 현안에도 밝다는 게 강점이다.

강진청년회의소 회장과 한국대학역도연맹 회장 등 다양한 단체에 속하면서 지역 내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다

내년 강진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을 포함해 별다른 야권 입지자가 없는 데다 조직력을 갖춘 무소속 후보도 전무하다는 게 지역 정치권 분석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무안군수

김산, 현역 프리미엄 업고 3선 도전
민주당 소속 입지자 4명 줄줄이 출마
민주 경선 결과 따라 선거 판가름 날 듯

내년 치러지는 무안군수 선거는 김산(67) 군수의 3선이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산 군수의 현직 '프리미엄'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입지자 4명이 출마표를 던진 가운데 이들이 김 군수의 3선 가도에 제동을 걸수 있을 지 주목된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 심사 불복, 무소속 출마로 당선된 김산 군수가 이번엔 민주당 소속으로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선 결과에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산 군수는 3선 도전을 공식화 하고 나서 불발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제 47, 48대 무안군수를 역임한 김산 군수는 굳건한 지역 내 지지기반을 토대로 3선을 겨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지역 민심을 전달하면서 깊은 인상을 남긴 김산 군수는 강한 추진력과 조직력이 강점으로 뽑힌다.

김 군수에 맞서 나광국(46) 전남도위원이 출마표를 던졌다. 목포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도의원 재선에 성공한 나 의원은 참신한 이미지로 표심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산



나광국



류준오



이정운



최옥수

이정운(66) 전 무안군의원도 군수 선거에 도전할 뜻을 내비쳤다. 공무원(사무관) 출신으로 7·8대 무안군의원을 지냈으며, 행정과 정치를 두루 경험한 토박이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무안군수 후보로 나섰던 최옥수(61) 김대중재단 무안군지회장도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주도하기로 한 광주 민·군공합 통합 이전 문제가 김 군수의 민주당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광주 빵에 반하다... '미미당' 이틀만에 매출 5억원·1만5000명 방문

광주시, 대표 미식 브랜드 육성 추진

광주시가 개최한 '2025 광주 빵페스타(일명 미미당·美米堂)' 행사 이틀간 현장 매출액이 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광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 모인 시민과 관광객은 이틀간 1만5000명을 넘겼고, 현장 매출은 5억원을 돌파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지역 대표 베이커리 24곳이 100여 종의 시그니처 제품을 선보였다. 야외 무대는 '가을 정원 속 빵축제' 콘셉트로 연

출돼 노인과 청년, 가족 단위 관람객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축제를 즐겼다.

축제는 단순 판매를 넘어 '로컬을 재발견하는 체험'에 방점을 찍었다.

대한제과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오징어 게임'을 모티프로 한 참여형 이벤트존을 운영해 현장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내년부터 대기 스트레스를 줄이는 스마트 웨이팅 시스템을 도입하고, 반죽·데코·굽기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배우고 먹는' 복합형 콘텐츠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로컬 베이커리 협업 브랜드도 개발해 팝업과 상

설 유통을 함께 모색하고, SNS 후기와 설문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방문자 유형과 구매 패턴을 도출함으로써 재방문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축제 한 번의 반짝 흥행을 넘어 '빵으로 도시를 여행하는' 지속 가능한 미식 관광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대한제과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수의 일부를 떼어내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에 500만 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유연숙 광주관광공사 팀장은 "올해 성과를 토대로 '광주 빵지도'를 만들고 전국 순회 팝업스토어도 추진해 '미미당'을 광주의 대표 미식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hb@

전남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박차

영광·해남·화순 사업 선정...친환경농가 소득 증대 기대

전남도는 4일 "2026년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 대상자에 3개 농업법인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은 친환경 벼 10ha(벼 이외 품목은 2ha) 이상을 인증받은 생산자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전용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남에서는 '너랑나랑유기테마파크영농조합법인'(영광), '인수영농조합법인'(해남), '해품

쌀영농조합법인'(화순)이 선정돼 사업비 15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 선정이 지역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와 협력해 친환경농업 가공·유통시설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친환경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에 선정된 도내 지원법인은 45개소(생산시설 8, 가공시설 28, 유통시설 8, 교육장 1)

로 총 234억원이 지원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은 대한민국 친환경농업 중심지로서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품목 다양화, 저탄소 유기농업 확산, 유기 가공식품 수출 확대 등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기농산물 생산 확대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 과수·채소 등 다양한 품목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유기농·무농약)은 전국의 50%, 유기농산물은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지방정가 라운지

‘장애인친화도시’ 광주, 무장애 건축물 0.3% 불과

정다운 시의원, 개선 촉구

광주 건축물 가운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비율이 0.3%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다운(북구 2선거구) 시의원은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고령친화 도시를 표방하지만 실질적 대책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지역 건축물 총 14만3595동 중 BF인증 건물은 486곳(공공 444·민간 42)이고, 최우수(S) 등급은 8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등록 장애인 6만 8595명과 노인 25만 7902명, 인구의 18.46%가 이동약자인 점을 감안하면 수요 대비 공급의 간극이 크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최근 5년 시 지원도 편의시설 전수조사 16억 8000만 원, 복지시설 이동식 경사로 1억1000만 원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제정된 촉진 조례는 상위법이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늘렸는데도 '5년 재인증'을 유지했고, 인증 현황을 매년 홈페이지에 공시하라는 규정 이행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공공청사·역사·병원·학교·공원 등 생활권 핵심 시설부터 BF 설계 컨설팅을 의무화하고, 민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증비 보조와 인허가 인센티브를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도시계획 단계의 BF 설계 컨설팅, 인증 비용 보조 등 민간 참여를 끌어낼 실질적 지원과 조례 전면 정비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멋진 구호보다 시민이 체감할 수지와 현장의 변화가 먼저"라면서 "도시계획 단계부터 BF 설계 컨설팅과 인증비용 일부 보조 등,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이 막히는 시민이 있다면 그 도시는 아직 모두를 포용하는 도시라 할 수 없다"면서 인증 지도를 공개해 접근 취약지대를 식별하고 예산을 우선 배분 등과 부서 간 총괄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40

1985-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